

기술혁신·일자리 창출 길잡이...지역경제 기틀 다진다



지난 1월 장성 레이저센터 지원 기업인 한방의료기기 생산업체 '다나메디칼'을 찾은 유동국(오른쪽 두번째)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이 회사 관계자로부터 제품 생산 과정을 듣고 있다.

전남테크노파크

신성장 동력 발굴 '컨트롤타워'
순천·나주 등 권역별 경제전략 지원
나주혁신도시에 지식산업센터
에너지-ICT 기업의 메카로

경제와 산업 여건이 매우 어렵다. 국제 정세는 미국·중국의 무역·환율 전쟁으로 얼어붙었고, 국제유가도 꾸준히 상승함에 따라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전남 주력산업인 철강·조선·화학 산업도 저성장 기조로 바뀌고 있어 지역경제를 이끌어야 할 신성장 동력 발굴이 요구된다.

하지만 지역경제 발전전략과 비전을 세울 컨트롤 타워 부재 탓에 안타까움이 많다. 전남테크노파크가 그 임무를 자임했다. 반가운 일이다.

◇기술 혁신·일자리 창출 산실

전남테크노파크의 비전은 '지역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산실'이다. 지역산업정책을 기획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는데 설립 목적이 있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혁신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기획 플랫폼과 기업지원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 정책 기획과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책기획 플랫폼은 정부 정책과 도정에 맞는 핵심사업을 도출해 국책 과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것이다. 기업지원 통합 플랫폼은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연구장비·지식재산·자원 등을 총괄, 기업 맞춤형 지원 메뉴얼을 구축해 성장사다리를 만드는 작업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이력관리가 돼 특정 사업에 지원이 몰리거나 누락되지 않는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바탕으로 전남의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을 발굴, 중앙과 지역 간 정책 가교역할 수행, 전남형 강소기업(스타기업)육성, 기술사업화와 기술투자 촉진, 우수기업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기틀을 다진다는 전략이다.

◇권역별 산업계획 수립 지원

전남테크노파크는 전남 동부·서부·중부 등 권역별 발전 계획을 집중 검토해 실행 가능한 산업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순천 본원과 분원 형태의 나주 센터 및 목포 센터를 설립해 삼각축을 구

축, 권역별 경제전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대기업 의존형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한 것이다.

순천 본원은 석유화학·철강 등 주력산업 중심으로 동부권 경제전략을 수립해 지원하고, 나주 센터는 에너지-ICT 중심의 중부권 경제전략을, 목포 센터는 조선·세라믹 등 서남권 경제전략을 담당한다.

전남테크노파크 2단지인 '에너지-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조성 사업은 본격화했다. 나주 혁신산단 내 4만㎡(약 1만2000평) 부지에 2단지 조성을 구상하고, 1차로 1만3000여㎡(4000평)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한다. 총 사업비 260억원(국비 160억원·지방비 100억원) 중 설계비 10억원을 국비로 확보했다. 중앙투융자심사에 이어 설계에 들어가면 11월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산업센터는 기업지원동, 생산동, 정부출연기관 분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에너지-ICT 창업기업의 보육과 지원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남테크노파크는 1차로 지식산업센터를 제2분원 성격으로 출발해 추가로 국책연구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기업 등을 유치해 명실상부하게 2단지 규모로 조성해 에너지-ICT 기업의 메카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지식산업센터는 나주 혁신도시에 설립하는 한전공대와 함께 에너지-ICT 신산업 클러스터를 형성, '혁신도시 시즌 2'를 주도적으로 이끌게 된다.

◇현장 찾아 문제해결 솔루션 제공

전남테크노파크는 에너지 신산업과 4차 산업혁명의 수단들을 기존 기업들의 제조기술과 접목해 성장하도록 구조 고도화 및 다각화를 꾀할 방침이다. 이런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 대학·연구소 등 전문가들과 협업한다.

동시에 전남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기업지원 밸류체인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는 전남의 지원기관마다 지원 사업을 개별 진행 중이다. 이렇다 보니 특정 산업에만 사업이 몰리거나 사업이 누락되고 중복되는 업무가 생기는 등 문제가 있다. 전남의 기업지원기관을 하나로 연결해 빠짐없는 기업지원 정책을 수립해나갈 방침이다.

전남테크노파크는 매주 목요일 '전남기업 찾아가는 산업현장 소통의 날'로 지정해 기업현장을 방문, 기업인들과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유동국 원장은 "경제 발전과 기업 성장, 일자리 창출의 해답은 결국 현장에 있다"며 "항상 기업현장을 발로 찾아가 문제해결의 솔루션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LEXUS LS 500h

VISIONARY HYBRID

시대가 주목하는 존재감으로 세상을 바꾸는 변화가 시작되었다
시대가 원하는 플래그십 하이브리드 Visionary Hybrid LS 500h



광주 전시장 : 080-384-7733 (광주 서구 상무대로 881)
전주 전시장 : 080-236-77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621)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LS 500h(엔진) 3.456cc, 공시중량 2,295kg, 멀티 스테이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복합연비 : 11.5km/l (도심연비 : 11.0km/l, 고속도로연비 : 12.3km/l), 복합 CO₂배출량 : 147g/km, 등급 : 4등급 *이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용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 경제 성장 밸류체인 구축 모델

목포 세라믹산업종합지원센터

원재료서 완성품까지 집적화
낙후된 목포지역 활성화 기대

전남테크노파크는 지역 경제 성장 구조를 밸류체인 구축으로 삼고 있다.

밸류체인은 원재료에서부터 부품, 완성품까지 단계를 생산 구조를 집적화한 시스템이며, 기술개발에서 공장 건설에 이르기까지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이 모델을 목포 세라믹산업종합지원센터로 제시했다.

세라믹센터의 강점은 입주기업이 센터에 들어와 공용실험실에서 기술개발, 시험제작 등에서 시제품 제조, 사업화지원 등에서 시험생산라인 운영, 인근 세라믹산단에서 제품 양산 등의 일괄 서비스를 받아 최첨단 세라믹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원스톱 구조라는 것이다.

세라믹센터가 들어선 국내 유일의 세라믹일반산업단지 주변에는 세라믹 원료인 알루미나(Al₂O₃)가 생산된다. 알루미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주요 공정 부품 및 부자재로 쓰이는 대표적 세라믹 상

용화 원료 소재다. 이 원료를 가공해 소재·부품을 만들고, 이를 활용해 완성품까지 제조한다.

세라믹센터는 연구개발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형 입주기업동 18실(각 60㎡), 양산테스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장형 사업화지원동 총 면적 2840㎡를 보유하고 있다.

입주기업동에는 80여종의 시험생산분석장비 등을 갖춰 60여개 기업이 이를 활용, 70여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280억원을 들여 일괄 시험제작 공정 77종을 구축한 시험제작동은 가동률 55%, 장비 임대 수익금 7억원을 올리고 있다.

연구개발단계에서 사업화단계로 넘어가는 스케일업 과정을 통해 제품 양산에 성공한 ㈜세원하드페이징(전북), ㈜삼화양행(서울), ㈜포스포(광주) 등이 목포 세라믹산단에 양산공장을 건립했다. 400억대 투자규모에 100여명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 ㈜코머스(전남), ㈜세스타이오골드(서울), ㈜메카로(경기) 등 3개사도 분양계약을 마치고 공장을 착공하거나 착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 6개사가 추가로 입주할 계획이어서 세라믹산단은 250억원 투자 규모에 150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세라믹산단의 기업 집적화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낙후된 목포지역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